

한국 학생의 영어 전설모음

발음 실태 조사 연구

-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

이 상 직(한국교원대)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능력은 단지 모국어에 국한된 특성이라고만 볼 수 없다. 그러나 모국어와 다른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는 많은 요인들로 인해 학습상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그러면 외국어의 학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모국어의 간섭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중 음의 차이에 따른 간섭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문제 중의 하나일 것이다. 또한 나이가 들어갈수록 모국어에 대한 언어 의식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이런 간섭현상은 더욱 심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영어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논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EFL 환경에서는 외국어 발음을 본국인처럼 완벽히 습득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발음 교육에 있어서 교사는 모국어 발음의 간섭현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모국어와 외국어의 발음상의 차이를 비교, 대조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꾸준한 발음 지도와 수정을 통하여 올바른 발음 습관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발음 지도는 가능한 한 학습 초기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게 될 때 올바른 발음 습관을 형성시켜 줄 수 있으리라 본다. 물론 학생들에게 외국어의 색채(foreign accent)가 전혀 없는 훌륭한 발음 습득의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모국어 화자(native speaker)에 가까운 발음을 습득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으며, 교사는 학생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발음상의 잘못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정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을 통해 나타난 영어 발음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초, 중, 고 학생들의 발음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발음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영어 발음 지도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모든 발음을 광범위하게 연구하기에는 많은 제한이 따르므로 영어 모음 중 한국 학생들이 청취 및 발음상에 있어서 가장 혼란을 느끼며 음가를 구별하기 힘든 영어의 전설모음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II. 국어와 영어 전설모음 체계 비교

2.1. Daniel Jones의 기본 모음 체계 (Cardinal Vowel System)

D. Jones는 자신이 고안한 기본 모음 체계(cardinal vowel system)를 제시하면서, 인간이 발음하는 모음을 쉽고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두 나라 모음을 한 체계에서 비교할 수 있으며, 외국어 학습자가 자기 모국어에 외국어의 모음을 비교하여 학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본모음도의 이용이라고 주장한다.

기본 모음 체계는 생리적인 면에 기초를 두어 입의 벌어짐과 혀의 위치를 고려하여 설정했다고 할 수 있다. 제 1차 기본모음(primary cardinal vowels) 여덟 개 중 /i/와 /a/는 조음적으로 만들어졌고, 그 나머지는 청각적으로 얻어진 것인데 /i-e/, /e-ε/, /ε-a/간의 청각상의 거리가 대략 균등하도록 설정된 것이며 기본모음 /a/, /ɔ/, /o/, /u/는 후설모음으로서 역시 청각상 등거리를 척도로 해서 설정된 것이다.(그림 1,2) 여기에 원순성을 고려하여, 제 1차 기본 모음들 중 혀의 위치는 그대로 두고 입술 모양만 바꿔 비원순음은 원순으로, 원순음은 비원순으로 하여 제2차 기본 모음(secondary cardinal vowels)을 설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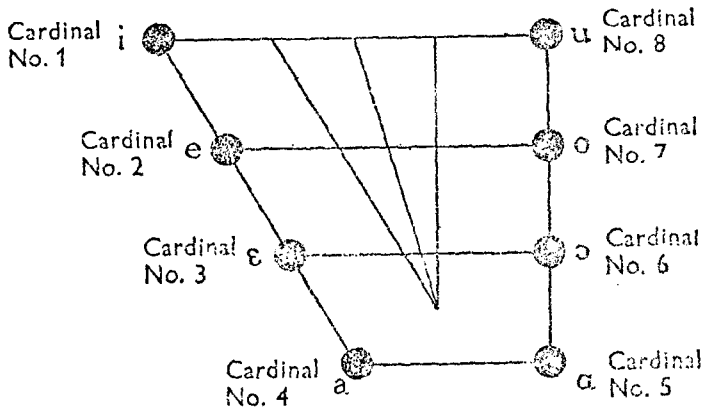


그림 1. 제 1차 기본 모음(D. Jones, 1972: 36)

2.2. A. C. Gimson(1989)의 영어 모음 표기

H. Sweet와 D. Jones의 전통을 이어 받은 Gimson은 현대 영국의 음성학을 대표하는 학자로서 음소 표기의 목적을 정서법(orthography)과 언어 교육, 그리고 영어의 여러 종류의 발음 비교에 두고 있다. 그는 음장(length)을 중요시한 D. Jones의 분석에 비판을 가하고 음질(quality)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어떤 음은 그 음의 음성적 특성을 나타내고, 기능을 결정하는 음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장(length), 고저(pitch), 강세(stress)의 정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질들은 음소의 한계를 시간적으로 초월하여 발화(utterance)의 훨씬 더 높은 단위를 포용한다”고 주장하며 음질뿐만 아니라 운율적인 면과 음장도 중시하였다.

Gimson(1989:98)은 다음과 같은 표기의 차이를 영어 모음체계 안에서 세웠다.

i -->ɪ u-->ʊ ɔ -->ɒ ə -->ɜ

또한 음성학적으로 긴장된(tense) 모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 기호를 사용하였다. 그의 모음 분류는 다음과 같으며, 그중 단모음사각도는 (그림 2)와 같다.

*** 영어 모음 분류**

a. 단모음(monophthong)

a). 단모음 - /ɪ, e, æ, ɒ, ʊ, ʌ, ə / (7개)

b). 장모음 - /i:, u:, a:, ɔ:, ɜ:/ (5개)

b. 이중 모음(diphthong)

a). /ɪ /로 이동하는 전이음 - /eɪ, aɪ, ɔɪ / (3개)

b). / u /로 이동하는 전이음 - /əʊ, aʊ / (2개)

c). /ə /로 이동하는 전이음 - /ɪə, eə, uə / (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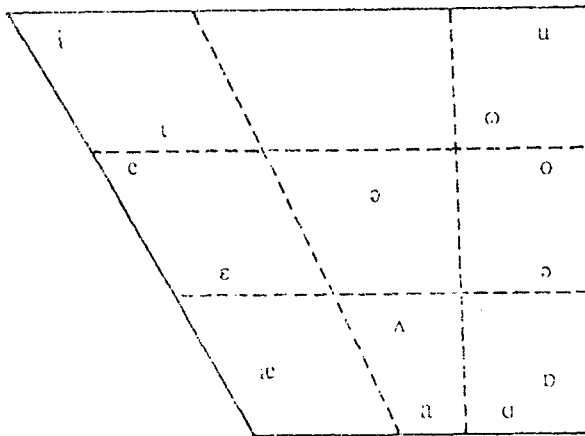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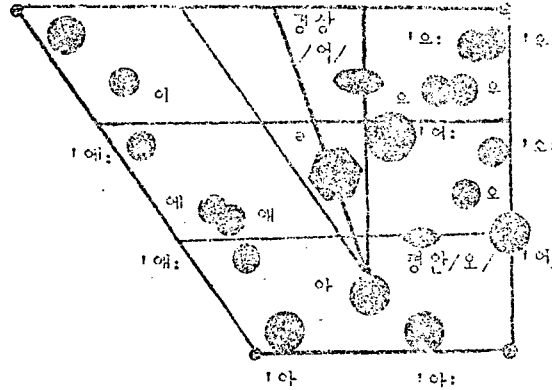


그림 2. 영어 단모음사각도(Gimson, 1989: 101)

2.3. 국어의 단순 모음 체계

국어의 모음체계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모음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모음체계의 표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 서울말의 모음체계 중심으로 분류한다. 국

어의 모음에 관한 몇몇 학자들의 대표적인 분석은 대개 ‘위’와 ‘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를 놓고 8개에서 10개까지로 설정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이들을 이중모음으로 취급하면서 /æ/와 /a/를 별개의 음소로 보고(그는 /æ/를 /a/로, /a/는 /ʌ/로 표기한다.) 아홉 개의 단순모음체계를 주장하고 있는 이현복의 단순모음체계를 기준으로 하겠다(그림3).



(그림3) 국어 모음 사각도(이현복, 1971: 23)

또한 이현복은 국어 모음 상승화 추세로서 젊은 층이 /e/와 /æ/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발음에 있어서 /æ/ 음가가 폐모음(closed vowel) 쪽으로 상승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순경(1990)은 국어의 상승화 추세로 ‘ㅞ’와 ‘ㅟ’의 구별이 없어지는 합류(merge) 현상이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연령층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4. 국어와 영어의 전설모음 비교

국어 전설모음과 Gimson의 모음체계(RP로 약칭함)의 음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모음 /ɪ/와 RP /i:/, /ɪ/

국어의 모음 /ɪ/는, 기본 모음 체계(CV로 약칭함)의 1번과 2번 사이에 들어오는 음가로서 전설 폐모음이며 비원순음(unrounded)이며 혀를 긴장시켜서 내는 모음이다. 이 음에는 장단의 차이가 있는데 장음[i:]일 때는 단음인 [i]일 때보다 혀의 위치가 더 높고, 좀 더 앞으로 나오며, 혀의 근육이 단단해지고 입술이 옆으로 더 잡아당기게 된다. 보통 영어의 /i:/와 /ɪ/의 중간 음가를 갖기에 /i:/보다는 짧고 이완된 음이지만, /ɪ/보다는 길고 긴장된 음이다. 또한 음절에 있어서도 그 중간 단계의 음가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RP /i:/	RP /i/	K. /ㅣ/
each	hit	몹다
read	king	시인
key	women	피리

(2) 모음 /ㅕ/와 RP /e/

국어 모음 /ㅕ/는 기본모음 2번과 3번 위치에서 2번에 근접해 있다. 전설 모음 'ㅣ'를 발음할 때보다는 좀 더 낮추고, 전설을 경구개로 향하여 반개로 올려서 내는 모음이다. 입술을 옆으로 벌리되 그 정도가 'ㅣ'보다는 조금 덜하며, 후설의 양옆을 윗어금니의 가장자리에 살짝 대고 발음한다.

국어의 /ㅕ/는 영어의 /e/보다 혀의 위치가 약간 높다. 따라서 영어의 /e/는 국어의 /ㅕ/와 /ㅕ/의 중간 위치에서 발음되는데, 국어의 /ㅕ/보다는 /ㅕ/에 더 가까운 소리이다.

RP /e/	K. /ㅕ/
meant	에누리
any	메밀
says	벌레

(3) 모음 /ㅗ/와 RP /æ/

기본모음 3번 정도에 연결된다. 전설이 경구개로 향하여 반개 부근의 높이로 올려서 내는 모음으로 입술의 모양은 평순도 원순도 아니고, 전설모음들 가운데 혀의 높이가 낮은 상태에서 발음된다. 이 음은 RP에 비해 아래턱과 전설의 높이가 낮추어 지고, 입안이나 혀는 긴장되지 않지만 인두가 긴장되어 인두강이 약간 좁아진다. 또한 영어의 /æ/보다 약간 높으며, 국어의 /ㅗ/음을 보다 충분히 벌리고 내는 음이 영어의 /æ/음이라 할 수 있다.

RP /æ/	K. /ㅐ/
aunt	애인
romance	해외
salmon	연애

2.5. 선행 연구

한국 학생의 영어 발음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이를 심도 있게 연구한 논문은 상당히 많으리라 여겨진다. 그 중 음역의 허용도가 비교적 넓고 조음자의 위치와 발음 형식에 의해 쉽게 구분될 수 있는 자음의 경우 비교적 쉽게 그 차이점을 인식하고 적응할 수도 있겠지만, 모음의 경우에는 음의 허용도가 비교적 좁고 미세한 차이에 의해 쉽게 의미 차이를 가져온다. 특히 국어의 모음과 대응이 잘 되지 않는 모음을 가진 영어를 배우는 한국인에게 그 차이가 쉽게 인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쉽게 발음에 적응할 수도 없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영어의 모음과 한국어와의 비교를 통해 그 차이점을 알아보고 영어 교육적인 견지에서 많은 제의를 하고 있다. 모음의 경우는 발음이 비교적 예민한 것이기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일 언어 문화권에서도 자음상에는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않지만 모음에 의해서 지역별 방언과 나라별로 그 음가를 달리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하물며 외국어로서 그 나라 말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자음은 물론 모음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다.

여기에서는 영어의 모음과 국어의 모음상 가장 문제시되며 그 차이점이 잘 구별되지 않는 전설 모음에 한계를 두고 기존 학자들 중 한국 학생의 모음 식별력 조사와 발음을 조사해 놓은 것을 대략 검토하면서 그 연구 결과를 필자의 연구의 한 방향과 비교의 참고 자료로 삼고자 했다. 선행 자료로 삼은 것은 유만근(1976)과 박주현(1982)이다.

유만근(1976)은 “우리 나라 대학생의 영어 모음 식별력 실태 조사에서 중학교 기본 어휘 표에 나오는 것과 고등학교 수준의 어휘를 중심으로 유사한 발음에 밀줄을 긋고 그 중 같지 않은 음의 구별을 묻는 문항을 작성하여 그 식별력을 시험하였다. 그 결과 전설모음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았다.

- (1) /i:/, /ɪ/의 구별에서 응시자의 35%만이 정확히 구분할 수 있었다.
- (2) /æ/, /e/의 구별에서 응시자의 27%가 옳은 답을 주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점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i:/, /ɪ/의 경우 이를 구별하기 위해 최소 대립어(minimal pair)인 단어들(beat/bit, deep/dip, eat/it, eel/ill, feel/fill, seat/sit, seek/sick)을 통해 서로 혼동하지 않도록 많은 연습을 하여야겠다.

둘째, 영어의 /æ/는 한국어의 /ㅐ/ 혹은 영어의 /ɛ/보다 입을 더 많이 벌리고 발음해야 하는 것이니, 더구나 이것을 /e/와 혼동한다면 망친 발음이 될 것이다. 특히 ‘에’와 ‘애’가 구별 안되는 한국 남부 방언을 쓰는 사람들은 /e-ɛ-æ/의 구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박주현(1982)은 우리 나라 학생들의 영어 청취 및 발음 능력이 수준 이하일 것이라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여 영어 모음 중 전설모음에 제한하여 연구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영어는 한국어와 음소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집중적이고 의도적인 훈련이 없으면 영어 발음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다. 영어 전설모음은 이러한 점에서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한국어 평순전설모음은 /이-에-애/ 셋인데(젊은 층에서는 /에-애/의 구별에 혼동을 한다: 이현복) 영어의 경우 /i: - ɪ - e - æ/의 넷으로 구분되고 그 음가도 서로 상이하야 무조건 /i: - ɪ/와 / ɪ/, /e/와 / ɛ/, /æ/와 / ㅐ/로 대응시킬 수 없다.”(박주현: 1982)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모음사각도(그림 5)를 Gimson의 영어 전설모음(그림 4)과 비교하면서 한국어와 영어의 모음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말하고, 한국인이 겪는 영어 청취와 발음의 어려움을 예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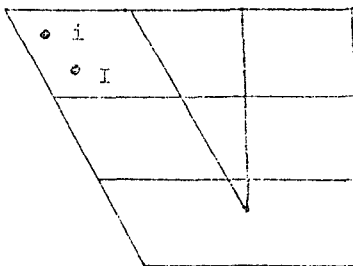


그림 4. 영어 전설모음
(Gimson 1989: 101-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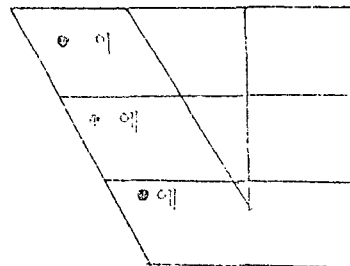


그림 5. 한국어 전설모음
(이현복 1990: 63)

또한 그가 모음 뒤에 따라오는 유/무성음에 따른 영어의 네 음가를 실험,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i:/ 발음은 다른 모음에 비해서 큰 오차가 없는 것 같다. 대부분의 경우 /i:/와 /ɪ/의

범위에 든다. 또한 유성자음과 무성자음 앞에서의 음의 길이를 구분 못하는 것 같다. 이것은 문장 중에서 두드러지며 /dʒi:n/의 경우 많은 학생들은 상당히 짧은 /i/를 내어서 문장 앞 낱말은 발음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

(2) /i/의 발음은 12%의 학생만이 제대로 발음하는 것 같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입의 근육을 너무 긴장시켜 자연히 음이 길어지고 입이 적게 열리는 것 같다. 즉 그 정도가 심하여 63.2%나 되는 학생들이 /dʒi:n/으로 발음하고 있다. 좋게 보아서는 문장 끝의 낱말에 악센트를 준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3) /e/는 청취 때와 마찬가지로 /e/와 /æ/는 혼동이 심하다. /e/음의 경우 잘해야 /e/정도가 되는 것 같다.(한국어의 /ㅐ/ 정도) 그리고 그 현상은 무성자음일 때보다 유성자음 앞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4) /æ/의 경우 분명한 /æ/발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거의 들을 수가 없다. 이 발음은 /e/및 /ε/와 혼동되고 있고, /e/의 경우와 같이 유성자음 앞에서 불안정성이 좀더 심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i:/발음이 불안정하다.(특히 문장 중에서)

둘째, /i/의 발음을 위해서 너무 조음기관을 긴장시킨다.

셋째, 정확한 /e/의 위치를 모른다.

넷째, 충분한 /æ/를 발음하지 못한다.(기껏해야 한국어의 /ㅐ/ 정도에 그친다.)

다섯째, 환경에 따른 모음의 변이를 잘 알지 못한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가. 국민학생: 시골 소재 K 국민학교 6학년 학생 중에서 희망자 10명을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 학생은 1994년 3월부터 1주일에 1시간씩 연구자로부터 특활 영어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으로서 그 이전까지 공식적인 사전 영어 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다.

나. 중학생: 군 단위 M 중학교 3학년 학생 중에서 남녀 학생 총 5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또한 원어민의 발음을 직접적으로 들을 기회가 없이 교사의 모범 발음이나 녹음기 내용을 통해 발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었다.

다. 고등학생: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에서 5명을 무작위로 선정했다. 이들의 발음을 통해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발음의 전형적인 실태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3.2. 연구의 절차와 방법

가. 국민학교: 전설모음 /i:/, /ɪ/, /e/, /æ/를 포함하는 단음절 어휘로 각 모음당 5개씩의 단어, 총 20개의 단어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단어에 대해서 미국인의 발음을 녹음하여 대상자들이 따라 발음할 수 있는 모델로 하였다. 모델 발음을 듣고 3차례 연습한 뒤 따라 한 발음을 관찰, 녹음하였다.

나. 중학교: /i:/, /ɪ/, /e/, /æ/의 발음을 내는 단어쌍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그 추출한 단어들이 배열상 학생들에게 발음을 예측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어들을 섞어서 제시하였으며 발음 문항 수는 총 34개였다. 학생들은 문항지에 있는 단어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연습 등을 거치지 않고 제시된 즉시 바로 두번씩 발음하였으며 그 내용은 녹음되었다.

다. 고등학교: 주변의 음성 환경이 비슷한 단어군 중 /i:/, /ɪ/, /e/, /æ/ 음가가 들어 있는 1음절의 단어를 선정했다. 선정된 단어들은 혼합 배열을 하되 4단어를 한 군으로 4단어에 /i:/, /ɪ/, /e/, /æ/의 모음 음가가 모두 들어가도록 했다. 발음 문항 수는 31개로 하였고, 실험 문항을 학생들에게 미리 나누어주어 단어의 내용을 대략 살펴보도록 했으며, 발음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의 설명이나, 연습, 교정 등은 하지 않았다. 발음의 녹음은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3.3. 실험 도구

실험에 사용한 단어들은 다음과 같으며 각 단어들을 무작위로 섞어 목록표를 만들어 실험에 투여하였다.

가. 국민학교: /i:/ : meat, heat, read, seat, beat

/ɪ/ : bit, rid, sit, hit, mitt

/e/ : head, dead, red, met, bet

/æ/ : dad, bat, hat, rat, mat

나. 중학교: /i:/ : seat, bead, deed, meet, heed, peak, teen, beat

/ɪ/ : bit, did, tin, pick, hit, sit, bid, mitt, pin

/e/ : head, met, bed, pen, ten, set, bet, peck

/æ/ : sat, had, tan, pack, bat, mat, dad, pan, bad

다. 고등학교: /i:/ : bead, seat, geese, deed, peak, meat, teen

/ɪ/ : hid, tin, did, bid, mitt, pin, sit, pick

/e/ : ten, head, set, pen, bed, guess, met, peck

/æ/ : bad, tan, pack, had, pan, dad, mat, sat

3.4. 자료 분석 방법

학생들의 발음이 녹음된 테이프를 음성학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한 분의 교수를 중심으로 ‘영어음운론’을 수강중인 대학원생 5명이 청각적으로 모음의 음가를 구별하고 분석하였다. 발음의 구별이 어려운 음가는 여러 번 반복하여 듣고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영어 모국어 사용자의 의견도 참고하였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험자들의 발음을 문항별, 음가별로 빈도를 구하고,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각 모음에 대한 발음 양상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하였다.

녹음된 자료들은 /i:/, /ɪ/, /e/, /æ/로 구분하였으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자료들이 많아 다음과 같은 중간 단계를 설정하여(/i:/음에서 음의 길이만 짧은 것: /i/, /e/와 /æ/의 중간 단계의 발음: /e/) 6단계로 나누고 이 범위를 넘어서는 자료는 기타로 처리하였다.

3.5. 연구의 제한점

시간 및 표집 대상의 제약으로, 그 분석 결과가 한국 학생의 전반적인 영어 발음의 실태 및 문제점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이 청각에 의존하는 것이었기에 주관적인 선입견과 판단의 오류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문장 수준에서의 발음 조사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발화에서 모음이 받는 음의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발음 현상에 대한 폭 넓은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설모음에 한정시킨 점도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IV 결과 및 논의

전설모음별 분석 결과를 학교 급별로 집계한 내용은 <표 1>, <표 2>, <표 3>과 같다.

<표 1> 전설모음별 분석 결과 집계표(국민학교)

전설 모음	단어	발음 결과 집계						비고
		i:	i	ɪ	e	ɛ	æ etc.	
i:	meat, heat, read seat, beat	47 (94%)	3 (6%)					
i	bit, rid, sit, hit, mit		18 (36%)	4 (8%)	28 (56%)			
e	head, dead, red, met, bet				50 (100%)			
æ	dad, bat, hat, rat, mat				10 (20%)	27 (54%)	11 (22%)	2 (4%)

<표 2> 전설모음별 분석 결과 집계표(중학교)

전설 모음	단어	발음 결과 집계						비고
		i:	i	ɪ	e	ɛ	æ etc.	
i:	seat, bead, dead meet, heed, peak teen, beat	38 (95%)	2 (5%)					
i	bit, did, tin, pick, hit, sit bid, mitt, pin		45 (100%)	0 (0%)				
e	head, bed, met, pen, ten, set, bet, peck				38 (95%)	2 (5%)		
æ	dat, had, tan, pack, bat, mat, dad, pan, bad					43 (96%)	2 (4%)	

<표 3> 전설모음별 분석 결과 집계표(고등학교)

전설 모음	단어	발음 결과 집계							비고
		i:	i	ɪ	e	ɛ	æ	etc.	
i:	seat, bead, dead meat, peak, geese, teen	9 (26%)	20 (56%)	3 (9%)				3 (9%)	
i	hid, did, tin, pick, bid, sit mitt, pin	10 (25%)	27 (67%)	3 (8%)					
e	head, bed, met, pen, ten, set, guess, peck				30 (75%)	9 (22%)	1 (3%)		
æ	sat, had, tan, pack, mat, dad, pan, bad				10 (25%)	26 (65%)	4 (10%)		

<표 1>의 국민학생의 경우 /i:/의 발음은 다른 모음에 비해 거의 정확히 따라 발음하였다. meat(1), seat(1), read(1)에서 3경우만 /i/로 발음하였다. meat와 seat는 무성자음 앞에서 음의 길이가 짧아진 것 같다. 이것은 국어의 /이:/와 미국영어의 /i:/ 모음의 형성음 F1의 주 파수가 각각 285와 280으로 비슷한 것으로 보아 국어의 /이:/ 발음으로 대치시켜도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ɪ/ 발음은 8%(4명)만이 정확히 발음한 것 같다. 56%는 /e/로, 36%는 /i/로 발음하였다. 이것은 오영숙(1982)의 청음 실험에서 wick, pit, hidden의 /ɪ/ 발음에서 65%의 학생이 우리말 /ɪ/로 34%의 학생이 /i/로 들었다는 실험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혀의 높이로 보아 미국 영어의 /ɪ/발음은 국어의 /이/와 /에/ 발음 사이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이 /이/나 /에/로 듣고 발음하며 긴장음을 내는 것으로 보인다.

/e/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이 정확히 발음하였다. 미국영어 /e/의 형성음 F1은 550으로 국어의 /에/(F1:500)와 /ɪ/(F1: 585)의 중간에 위치하므로 정확히 따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오영숙(1982)의 실험 결과는 pet, met, kettle의 /e/ 발음을 63%의 학생이 국어의 /ɪ/로, 37%의 학생이 /ɪ/로 들었던 것과 비교가 된다.

/æ/의 경우 22%만이 정확한 발음을 한 것 같다. 이 발음은 특히 입모습을 관찰했는데 22%의 학생은 국어 발음에서는 볼 수 없는 입모습으로 아래턱을 많이 내리고 발음하였다. 대부분의 학생은 입을 덜 벌리고 발음하는 것 같다. 즉 국어의 /ɪ/보다는 입을 더 벌리는 /æ/ 발음 정도가 대부분이다(54%). 20%는 /e/발음과 구분이 안될 정도로 같게 발음했다. 잘

못 발음한 2가지 경우는 이중모음화한 발음 /ea/식의 발음이다. bat의 경우는 10명중 1사람도 정확히 발음하지 못했다. 그것은 무성자음 앞의 /æ/발음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어 순간적으로 입을 덜 벌리며 /e/나 /ε/로 발음했다.

오영숙(1982)의 cash, pat, anger의 /æ/ 발음 청음 실험 결과 학생의 56%가 국어의 /ㅐ/로, 27%가 /ㅑ/로, 17%가 /아/로 들었다는 실험 결과와도 거의 일치하고 있다.

<표 2>에 의하면 중학교의 경우 /i:/의 발음은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i/와 비교해서 모음의 길이를 의식적으로 길게 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음가를 따져 볼 때 충분히 긴장된 제음가를 낸다기 보다는 한국어의 /ㅣ/ 발음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길게 하려는 것처럼 들린다. 또한 유무성 자음 앞에서 음의 길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 다만 'teen'과 같은 발음에서는 충분히 긴 제음가를 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비음(nasal) 앞에서는 모음을 길게 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i/의 발음의 경우 본 조사 대상이 된 학생 중에서는 한 명도 이 음가를 제대로 내는 학생이 없었다. 대부분 /i:/와 혼동하여 발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나마 모음의 길이를 의식한 학생은 짧게 발음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음장이나 음가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다. /i:/의 발음을 낼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ㅣ/ 모음을 자연스럽게 발음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i:/와 /ㅣ/ 두 개의 발음을 종합해서 볼 때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어의 /ㅣ/와 유사한 발음을 내고 있어서 긴장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장모음도 대부분 짧게 내는 경향이 있다. 또한 유무성 자음에 따른 앞모음 길이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한국어의 발음법칙이 적용되어 대표음가로 발음하는데서 기인하는 것 같다.

/e/ 발음은 대체로 귀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제대로 발음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학생들은 /e/와 /æ/의 발음을 할 때 구분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발음을 할 경우 학생들은 충분한 /e/와 /æ/의 발음 대신에 /ε/ 정도로 혼용해서 발음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발음은 대체로 잘 발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æ/의 발음은 위에서 보았던 /i/ 발음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발음이 가장 좋지 않았다. /e/와 전혀 구분을 하지 못하고 발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더라도 /e/와 구분이라도 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전혀 발음 구별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pack'이나 'pan'의 발음에서 /æ/와 유사한 발음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것은 학생이 발음을 제대로 의식해서 나타난 것이라기 보다는 /p/음가를 낼 때 기식음으로 발음되면서 벌어지는 입의 크기로 인한 것 같다.

/e/와 /æ/의 경우 전반적으로 /e/ 발음은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æ/는 전혀 제음가를 내주지 못하고 한국어에 있는 /ㅐ/ 정도의 긴장성 없는 발음을 차용해서 발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발음은 전혀 긴장도나 음가면에 있어서 구별이 되지 못하며 엄격한 영어의 제발음을 내주고 있다기 보다는 한국어에 있는 유사한 발음을 내고 있다고 본다.

<표 3>의 고등학생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ɪ/와(7.5%) /æ/음을 발음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10%), 그 다음은 /i:/이었으며(25.7%), /e/음을 발음하는 것이 가장 쉬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29.7 %로서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i:/의 경우 대부분 영어의 /i:/음은 한국 음가 방식으로 발음을 하기에 긴장이 느껴지지 않고 /i:/와 /ɪ/의 중간 발음인 긴장이 없는(lax) /ɪ/로 발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어의 /ɪ/음은 영어의 /i:/음과는 음질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편리상 /ɪ/로 표기함)

박주현(1982)은 /i:/음과 국어의 /i:/음을 단지 길이에 있어서 느껴지는 차이로 보고 길이가 짧아지는 경우 어느 정도 음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길이뿐만이 아니라 음의 질을 고려하여 그 문제점을 같이 지적한다.

/ɪ/의 경우 영어 /i:/와 마찬가지로 /ɪ/ 음가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국어 모음인 /i/로 발음하기에 영어의 /ɪ/보다는 tense가 느껴지고 턱의 높이도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발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 발음은 전반적으로 영어의 /e/음은 청각상 두드러진 문제점은 없었다. 그러나 /e/를 발음할 때, 표 1에서 보듯이, 그 음가가 /e/-/æ/까지 분포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set"와 "met"에서는 /e/ 음가가 거의 안정적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head"와 21번 "bed"에서 /e/ 음가가 불안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모음 뒤의 자음이 /d/와 /t/의 유.무성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어 박주현의 결과 분석과 일치하는 면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는 좀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문제로 여기서는 덮어두고자 한다.

/æ/의 음가를 제대로 발음하는 경우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e/-/æ/음을 혼동하는 한국인들은 이 음가를 국어의 /ㅐ/나 /ㅓ/ 정도로 발음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이미 지적한 문제점이었고 실험 전에 예측한 바대로의 결과였다. 이 문제는 우리 음가에 충분히 입을 벌려 발음하는 /æ/음이 없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 외, 나타난 결과를 통해 주목할 만한 사실이 몇 가지 밝혀졌다.

첫째, 1번 문항 seat의 경우 모음의 음가가 국어의 짧은 모음 /ɪ/보다는 오히려 /ɪ/에 가까운 경향이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 이는 모음 앞의 어두의 자음/s/가 조음점이 alveolar-palate이기 때문에 혀끝의 위치가 좀더 후설 쪽으로 이동되면서, 혀의 높이가 낮아지고 느슨해지면서 영어의 /ɪ/에 가까운 음이 되지 않았나 여겨진다.

둘째, 21번과 10번의 tin과 teen을 보면, 모음의 음가가 모두 영어의 /i:/ 음가를 지닌 인상을 준다. 이 단어들의 모음의 환경을 보면, 모음 뒤의 자음의 비음인 /n/임을 알 수 있다. 국어의 경우 자음 중 유성음인 것이 /ㅁ/, /ㄴ/, /ㄹ/인 것을 고려해 볼 때 한국 학생들은 익숙한 이러한 국어의 유성음 환경에서는 영어의 /i:/, /i:/음에 관계없이 영어의 긴장모음(tense vowel)인 /i:/에 가까운 발음을 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n/음 외에 영어 중 한국어의 유성음 환경을 가진 /l/, /m/을 영어의 /i:/음 뒤에 갖는 단어인 경우 그 음가에 유사하

게 발음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ex. heel/hi:l/, seem/si:m/). 이는 박주현이 지적했듯이 /dʒi:n/으로 발음할 영어 단어를 한국 학생들이 거의 제대로 발음한다는 점과, 그 반대로 /dʒm/으로 발음을 할 것을 /dʒi:n/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 문제시된다고 한 연구 결과와 많은 유사점을 보이는 대목이다. 그 외 영어 발음의 유성적 환경과 무성적 환경에서의 한국 학생의 음가상의 차이는 좀더 체계적으로 연구해 보아야 할 것 같다. 다만 제한된 본 자료를 통해 전체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한국 학생들은 영어의 유/무성의 환경에 무관하게 /i:/와 /ɪ/음을 거의 확일적으로 쓰다가 한국어의 유성적 환경인 /ㄴ/, /ㅁ/, 및 /ㄹ/ 앞에서는 영어의 /i:/음과 유사한 발음을 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래의 연구의 목적이 유/무성 여부에 따른 한국 학생의 발음상의 차이를 알아보려는 것이 아니었기에 그에 합당하도록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시인한다. 다만 결과의 분석 과정에서 우연히 그러한 경향에 관심을 갖게끔 하는 자료상의 성질이 나와 있기에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5.1. 결론

1) /i:/ 발음: 국민학생의 경우 국어의 강세가 있는 장모음 /'이:/나 강세가 있는 단모음 /'이/와 음가가 비슷하여 대부분의 학생이 정확히 따라 할 수 있었다. 중학생의 경우 대부분 양호하게 발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충분히 긴장된 제음가를 낸다기보다는 한국어의 /ㅣ/의 발음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길게 하려는 것처럼 들린다.

고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영어의 /i:/음은 한국 음가인 /i:/와 /ɪ/의 중간 발음인 lax /i/로 발음하였다.

2) /ɪ/ 발음: 국민학생의 경우 거의 정확하지 못했으며, 음을 긴장하여 발음하고 /e/나 /i/로 들었으며 /e/ 쪽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더 우세했다. 중학생의 경우 한 명도 제음가를 낸 학생이 없었으며 대부분 /i:/와 혼동하여 발음하고 있는 것 같았다.

고등학교의 경우 영어의 /ɪ/보다는 tense가 느껴지고 턱의 높이도 /ɪ/를 발음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음가를 보였다.

3) /e/ 발음: 국민학생의 경우 혀의 위치가 우리말 발음 /'에/나 /ㅐ/의 중간에 위치하므로 거의 정확히 듣고 따라 발음하였다.

중학생의 경우 이 발음은 대체로 귀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제대로 발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두드러진 문제점은 없었으나 표에서 보듯이 부분적으로 그 발음의 범위가 /e/-/æ/까지 분포되었다.

4) /æ/ 발음: 국민학생의 경우 턱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입을 덜 벌려 우리말 발음 /ㅐ/

나 / ɰ/ 정도로 발음하는 사람이 많았다.

중학생의 경우 /e/와 전혀 구분을 하지 못하고 발음하고 있었으며 /ɛ/정도로 혼동해서 발음하고 있는 것 같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이 발음에 대한 구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어의 / ɰ/나 / ɱ/로 발음하였다. 이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우리 음가에 /æ/음이 없기 때문에 이 발음에 대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발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5.2. 제언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사범대학이나 교사 연수 기관에서는 기존 음성학 강좌를 단순히 이론만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발음 지도와 관련하여 가르쳐야 한다.
- 2) 교사들이 충분한 언어학적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 3) 현직 교사나 사범대 학생들을 위해 발음 지도에 관한 책자가 제작, 보급되어야 한다.
- 4) 학생들의 개별 학습을 돕는 영어 발음 교정용 소프트웨어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 5) 영어 발음 표기법은 음장과 음질을 모두 고려한 Gimson의 표기법을 따르는 게 좋다고 본다. 표기법으로 인해 단어를 의식하며 발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 강순경(1990). 한국어와 영어 단순 모음의 음향학적 분석.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김한곤(1983). 영어음성학.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박주현(1982). 대학생의 영어 모음 청취 및 발음 능력 조사 연구. 「말소리」, 5호.
- 박현홍(1992). 한영 모음의 비교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오영숙(1980). 청음 실험이 말해 주는 외국어 교육의 방향. 「영어교육」, 19호.
- 유만근(1976). 우리 나라 대학생의 영어 모음 식별력 실태 조사. 「응용언어학」, 8권 2호.
- 이현복(1972). 영어 발음 교육 문제. 언어교육 6권. 1호.
- 이현복(1994). 모음의 조음. 음성학 학술 대회 자료집. 대한음성학회.
- 이현복, 지민제(1983). 한국어 모음의 음향 음성학적 연구. 「말소리」, 6호.
- Gimson, A. C.(1989) An Introduction to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4th. eds., (Revised by S. Ramsaran). Edward Arnold.
- Giegerich, H. J.(1992). English Phonology. CUP.
- Jones, D.(1975)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9th. eds.